

英 빅토리아 여왕 부흥기 간직...싱가포르 공연계 만형

“싱가포르 교향악단 보자” 年 30만 세계 팬 방문

중국·인도 등 다문화 아우르는 ‘문화 사랑방’



지난 1905년 옛 싱가포르 시청과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메모리얼 홀을 리모델링해 개관한 빅토리아 씨어터 & 콘서트홀 전경. 싱가포르 정부가 근대건축물을 예술공간으로 재생시킨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사례다.

**아트센터,
도시의
브랜드가 되다**

소문난 공연장을 찾아서
-싱가포르 편
(22)빅토리아 씨어터&콘서트홀

싱가포르 =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최근 아시아의 신문화강국으로 부상한 싱가포르는 ‘두 얼굴’의 나라다. 마리나베이 샌즈 등 스카이라인을 바꾼 최첨단 휴양인프라와 시청사 등 오래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한 문화벨트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설계한 화려한 랜드마크와 예술적 상상력으로 되살린 근대문화유산들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건 싱가포르의 경쟁력이다. 특히 지난 1990년대 이후 싱가포르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는 문화도시의 면모를 느끼게 하는 생생한 현장이다.

지난달 중순 찾은 싱가포르 도심의 파당지구는 오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아시아 굴지의 근대건축물 재활용 프로젝트공사가 진행중이었다. 20세기 초 영국 식민지시절의 랜드마크였던 시청사와 바로 옆에 위치한 돌 지붕의 법원을 연결해 연면적 6만㎡가 넘는 초대형 뮤지엄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아시아 문명 박물관, 페라나칸(중국과 말레이 혼혈문화 및 인종)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등이 들어있다.

그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빅토리아 씨어터 & 콘서트홀’(이하 빅토리아 콘서트홀)이다. 지난 2002년 에스플라네이드(본보 1일자 보도)가 개관되기 전까지 싱가포르 공연계를 이끌어온 만형이다. 이들 근대유산 가운데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한 빅토리아 콘서트홀 역시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었다.

빅토리아 콘서트홀은 1860년대 영국 식민지 시절의 빅토리아 여왕 부흥기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시청 회의장으로 사용했던 타운홀(Town hall)과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서거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메모리얼 홀 등 2개의 건물이 중앙의 시계탑으로 연결돼 있다.

빅토리아 여왕의 전성기에 건립된 건물답게 이탈리아 스타일의 창문과 기둥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준다. 싱가포르 정부는 빅토리아 콘서트홀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가꾸기 위해 지난 1992년 국가유적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빅토리아 콘서트홀이 아트센터로서의 기틀을 다지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도시건축 엔지니어 존 벤틀(John Bennett)이 설계한 빅토리아 콘서트 홀은 시민들을 위한 공공극장으로 지난 1855년 문을 열었다. 1층 사무실과 2층 회의

장으로 나누어 이용했던 극장은 오페라와 연극, 콘서트 공연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순수한 문화공간으로 바뀌었다.

빅토리아 콘서트홀이 아트센터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빅토리아 여왕의 서거였다. 지난 1902년 당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해협식민지 총독이었던 존 앤더슨은 빅토리아 여왕을 기념하기 위해 극장 옆에 빅토리아 메모리얼 홀(기념관)을 건립했다.

이후 시계탑을 통로로 극장과 연결된 빅토리아 메모리얼 홀은 1905년 10월 18일 ‘빅토리아 씨어터 & 콘서트홀’이라는 복합건물로 공식개관했다.

빅토리아 콘서트 홀이 개관하면서 싱가포르 사람들의 일상은 180도 바뀌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다민족 커뮤니티를 끌어 안는 공간이 흔치 않았던 터라 빅토리아 콘서트홀은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사랑방이었다. 무엇보다 빅토리아 콘서트홀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데에는 싱가포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이 크다.

1905년 공식개관 이후 수차례 개보수를 거친 빅토리아 콘서트홀은 1979년 창단된 싱가포르 심포니 오케스트라(Singapore Symphony Orchestra·상임지휘자 란추이)의 전용홀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싱가포르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싱가포르 정부가 다문화 커뮤니티를 통합하고 아시아, 유럽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 결성한 비장의 카드. 96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싱가포르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연 50회의 정기공연과 해외 순회 등을 통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베를린, 런던 등 유럽 6개도시에서 열린 순회공연은 전회 매진사례를 기록했다. 세계적으로 팬층을 확보한 덕분에 빅토리아 콘서트홀은 싱가포르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보기 위해 매년 30만 명이 방문할 정도다. 빅토리아 콘서트홀은 904석의 오페라, 연극을 위한 극장과 883석의 클래식 홀을 갖추고 있다. 비록 후발주자인 에스플라네이드에 아트센터의 넘버 1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음향수준 만큼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특히 19세기 영국풍의 건축양식과 아담한 객석은 그 어떤 공연장에서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감성을 선사해 수많은 ‘빅토리아 마니아’들을 거느리고 있다.

또한 매년 ‘싱가포르 예술제’(Singapore Arts Festival), ‘싱가포르 선 페스티벌’(Singapore Sun Festival) 등 세계적인 행사들을 개최해 자칫만 강한 공연장의 명성을 자랑한다.

빅토리아 콘서트 홀 관계자는 “지난해 부터 총 1억 8000만 달러가 투입된 빅토리아 콘서트홀의 리모델링 공사는 오는 2013년 초 완공될 예정”이라면서 “빅토리아의 상주단체인 싱가포르 심포니 오케스트라는(빅토리아 콘서트홀이)완공될 때까지 에스플라네이드 등 다른 공연장에서 공연을 이어간다”고 말했다.

/jhpark@kwangju.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Le **쿠스쿠스** 패밀리레스토랑
 종이 울리면 따뜻한 음식이 나옵니다.
 당신께 드리는 **맛의 사치**
 Merry Christmas

**쿠스쿠스: 광주수원점
 광주신세계점(12월 OPEN)**
체인점 문의: 062)371-0011
체인점 지역: 대전, 전북, 전남, 광주